

## 영국국립발레단(ENB)의 Dance for Parkinson's Program 분석

\*  
노영재

목차	Abstract
	I. 서론
	II. ENB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Dance for Parkinson's
	III. Dance for Parkinson's Program의 내용 및 특성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Analysis of english national ballet's dance for parkinson's

Roh, Young-jae · Donga University

---

This study explores the content and characteristics of English National Ballet(ENB)'s Dance for Parkinson's, the first public ballet company to conduct such a study and successfully implement a community dance education program for Parkinson's disease using ballet.

A key feature of ENB's Dance for Parkinson's is the active use of the ballet company's repertoire, which gives participants a sense of belonging and self-efficacy as if they are part of a ballet performance. The narrative of classical ballet also brings joy and vitality to the lives of the participants whose personal stories are dulled and erased by Parkinson's, giving them a different story to tell.

By including not only dance sessions, but also theater tours and performances associated with the work, the program expands artistic knowledge, provides a "holistic artistic experience" through a wide range of cultural activities, and promotes community bonding and socialization.

The ballet-Parkinson's program serves as a positive body awareness and useful physical activity by enabling participants to imagine and experience the "organized freedom and beauty" of a body that has become disorganized and unnatural, while the history and popularity of ballet also reinforces the intellectual, emotional, and social aspects of non-motor activity.

Finally, ENB's Dance for Parkinson's is an example of exemplary community dance in the UK, as the company has demonstrated the value of 'ballet for all', making ballet accessible to the widest possible audience, and the company's specific commitment to developing a range of community programming aimed at the general public.

<key words> English national ballet, dance for parkinson's, community dance, ballet, parkinson's disease

<주요어> 영국국립발레단, 댄스 포 파킨슨, 커뮤니티 댄스, 발레, 파킨슨병

일반인들의 예술적 참여와 경험이 대두되는 커뮤니티 댄스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춤 활동이다. 연령, 배경, 능력과 관계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춤’으로서의 의미를 실천하는 커뮤니티 댄스는 집단이 주는 소속감과 안정감을 통해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의 불안과 소외를 타개하고 공동의 목적을 향해 나아감으로써 삶의 즐거움을 찾고 예술적 창의성과 성취감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만의 영역에서 벗어나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일상의 현장에서 긴밀히 관계를 맺는 특성상 움직임 교육을 통해 신체와 정신의 치유 차원에서도 활용된다. 특히 고령화 시대, 고령자의 정신 건강 증진이나 치매와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특정 환우 그룹에 초점을 맞춘 커뮤니티 무용교육프로그램 또한 전 세계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sup>1)</sup>

이러한 경향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영국국립발레단(English National Ballet, 이하 ENB)의 Dance for Parkinson’s의 사례를 통해 발레 미학으로 소통하는 커뮤니티 댄스 작업과 그 특성을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둔다. 2010년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시작된 ENB의 Dance for Parkinson’s는 미국 마크 모리스 댄스 그룹(Mark Morris Dance Group, 이하 MMDG)의 Dance for PD®에서 영감을 받아 ENB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Dance for PD®는 2001년 마크 모리스 댄스 그룹과 브루클린 파킨슨 그룹의 제휴로 시작한 파킨슨병 전문 무용프로그램으로 현재 28개국 300개 이상의 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세계적인 네트워크이다. MMDG의 커뮤니티 프로그램 중 하나인 Dance for PD®는 수업뿐만 아니라 입문 교육과정 및 워크숍과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며 전문 지도자 양성과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Dance for PD®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한 가지 기본전제는 “예술적 경험”(이경희, 2017:129)이다. 즉, 이 프로그램은 치료의 개념에서 환자들의 증상 완화가 목적이 아닌, 참가자들이 “환자라기보다는 무용수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탐험하는 예술적 경험”(제한정, 2019:176)을 하도록 하는 데 있다.

반면, 본 연구 대상의 주관기관인 ENB는 영국에서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최초의 대규모 무용단으로 “MMDG의 접근 방식을 재해석하

<sup>1)</sup> 이는 교육과 치유를 접목한 커뮤니티 댄스의 대표적인 예로, 국내에서도 2017년부터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 미국 마크 모리스 댄스 그룹의 Dance for PD®를 활용한 파킨슨병 무용교육프로그램과 인지장애 환우를 위한 Dance for Dementia 무용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 발레단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클래식 발레단으로서의 면모를 반영”(Houston, S. & McGill, A., 2011:6)했다. ENB 프로그램은 국내에도 이미 학계나 언론을 통해 영국의 대표적인 커뮤니티 댄스 사례로 여러 번 소개된 바 있다(Hutera, D., 2010; 김무현, 2019; 김재현, 2012; 이은누리, 2013; 제한정, 2019; 이은형, 2022). 하지만 해외 커뮤니티 댄스의 성공적인 사례로 현황과 성과에 대한 단편적인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파킨슨병과 무용의 연관성을 다룬 연구는 주로 해외에서 임상적, 과학적 접근으로 활발히 시행되었으나 국내 무용학 분야에서 과학적 접근은 현재 김무현(2019)이 Dance for PD®를 기반으로 무용교육프로그램이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 및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 연구가 유일하다. 이와 함께 MMDG의 Dance for PD®의 프로그램 자체가 지닌 교육적 가치를 고찰한 소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경희(2018)는 국내 최초로 Dance for PD®를 소개하며 프로그램의 의의와 내용을 탐색한 바 있고, 제한정(2019)은 Dance for PD®가 지닌 예술성에 주목하여 미학적 특성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은형(2022)은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블렌디드-러닝blended-learning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Dance for PD® 전문 강사의 심층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재까지의 국내 선행연구는 소수이지만 Dance for PD®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된 경향이 있으며, 이는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를 통해 국내에 강사 육성 과정이 도입됨으로써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반면, 본 연구는 ENB 프로그램이 Dance for PD®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상호 관련성이 있지만, ENB 프로그램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적인 발레를 활용한 커뮤니티 댄스의 작업 배경과 함께 이 프로그램이 어떠한 의미에서 소통을 이루고 치유의 영역에 도달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연구의 방법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가 없는 관계로 해외의 관련 연구와 홍보 자료, 언론 기사 등의 문헌을 조사하였으며, 외부에 공개된 수업, 방송, 공연 영상 등 시청각 자료를 함께 참조하였다.



## ENB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Dance for Parkinson's

1950년 Markova, A.와 Dolin, A.이 설립한 Gala Performance of Ballet를 모태로 하는 영국국립발레단(ENB)은 세계적 명성을 지닌 로열발레단과 함께 영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발레단이다. 발레단의 공적 자산을 활용해 지역 친화적 커뮤니티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둔 ENB의 다양한 행보는 왕실 후원의 정통성을 이어온 로열발레단과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ENB는 1980년대 영국 클래식 발레단 최초로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었고, 1988년에 설립한 영국국립발레학교는 영국 교육기준청(Ofsted)의 최우수 등급을 꾸준히 유지하며 수준 높은 젊은 무용수들을 양성하고 있다.

발레를 통한 커뮤니티 교육은 2012년 예술감독으로 부임한 로열발레단 수석무용수 출신 Rojo, T에 의해 더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최대한 많은 관객에게 세계적 수준의 클래식 발레를 선보이고 새로운 영감으로 창의적인 발레단이 되고자 한다”(ENB Homepage)는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ENB는 발레단의 예술적 수준을 끌어올리면서 한편으로 모두가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발레단이 지닌 예술적 자산을 사회적으로 확장하는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ENB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로컬 무용단, 댄스 스튜디오, 학교 등과 연계한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 지역 사회와 소통한다는 것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기본 발레 클래스는 ‘class for all’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위한 발레, 컨템포러리, 바디 컨디셔닝 등을 온·오프라인 클래스 형태로 개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과 고령자들의 창작 공연 프로젝트(ENBYouthCo-nnect, ENBYouthCo, ENBEldersCo), 소외그룹 어린이를 위한 발레 교육(Ballet Futures)<sup>2)</sup>, 50세 이상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센터 댄스 수업(Dancing East),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교춤모임(Leap of Faith), 지역 독립 안무가 창작 지원(Shared Ground) 등 공동체적 소통과 교류를 강화한 프로그램들은 그 대상과 연령을 세분화하여 다양하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고령층 중에서도 파킨슨병이라는 특정 공동체에 초점을 둔 ENB의 Dance for Parkinson's 프로그램은 이처럼 발레의 예술적 효용성을 여러 방식으로 적용해

<sup>2)</sup> 일명 ‘The Pipeline Project’라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지역 무용 학교와 연계하여 전통적으로 발레에서 소외된 그룹(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카리브해,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등)의 무용수들이 가능한 한 이른 시기부터 전문 발레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교육비, 공연 관람, 교통비, 연습복 비용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이다.

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사례연구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Dance for Parkinson's<sup>3)</sup>의 본격적인 구상은 MMDG의 Dance for PD® 프로그램에서 비롯되었다. 2008년 MMDG는 영국국제무용제인 Dance Umbrella에 참가, 《Romeo & Juliet, On Motifs of Shakespeare》 공연과 함께 무용제 행사의 하나로 ENB가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Dance for PD® 모델을 소개하는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뉴욕 브루클린을 기점으로 Dance for PD®의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가고 있던 MMDG는 자신들이 순회공연을 하는 곳마다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무용 아이디어를 전파하고 무료 수업과 훈련 워크숍을 제공하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발레 향유 계층과 수요를 확산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던 ENB는 파킨슨병을 위해 선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MMDG 프로그램의 확장성에 주목했다. 이에 영감을 받아 ENB는 2010년 발레단의 예술적 초점을 반영하여 자체적인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댄스 모델인 ENB Dance for Parkinson's 개발에 착수하였다.

파킨슨병은 뇌 기저핵의 화학물질인 도파민의 고갈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 퇴행성 질환으로 주로 노년층에서 발생하며 전 세계적으로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1817년 영국 의사 Parkinson, J.에 의해 파킨슨병이 체계적으로 기술된 지 200년이 지났지만, 파킨슨병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며, “운동증상 퇴화 수준의 주관적 진단, 운동증상의 정확한 발병 시점 파악 및 조기 진단의 어려움, 질병 진행 평가를 위한 객관적, 정량적 지표 미흡” 등으로 인해 난치성 질환군으로 분류된다(Bertoli et al., 2019:187; Carpinella et al., 2007:543; Chung et al., 2020:583-584; Jankovic et al., 2014:1351).

안정 시 떨림, 강직, 보행장애, 자세 불안정, 우울, 불안, 인지장애와 같은 운동증상과 비운동증상을 포함하는 파킨슨병은 일반적으로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며 일상생활의 수행을 저하하기에 환자를 포함한 가족들의 삶의 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의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무용을 포함한 신체 활동 프로그램과 같은 비약물적 중재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해서 행해지고 있으며, 운동증상의 심각도 개선이나 운동 능력 향상과 더불어 비운동 증상을 완화하거나 다면적 활동을 촉진하는 무용 중재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Houston, S. & McGill, A., 2013; Yang et al., 2022; Wang et al., 2022).

따라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ENB가 선택한 것은 먼저 연구를 통해 자신들이 시도하고자 하는 ‘발레 중재’에 관한 학문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ENB는 로햄튼 대학(University of Roehampton) 연구진에게 파킨슨병 댄

<sup>3)</sup> ENB는 본 프로그램의 명칭으로 북미에서 사용되는 ‘Parkinson’s Disease’ 혹은 ‘PD’대신 자국민이 선호하는 용어인 ‘Parkinson’s’를 사용한다. Parkinson’s는 영국 파킨슨병 커뮤니티에서 선호하는 용어로, “질병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질환”이라는 점을 강조한다(Houston, S. & McGill, A., 2013: 117).

스 프로그램 참여의 결과를 “신체 치료가 아닌 전인적 문화 경험”(Parry, J., 2015.11.26, <https://dancetabs.com/2015/11/dance-for-parkinsons-and-english-national-ballet/>)으로서 가능한 한 과학적으로 조사해달라고 의뢰한 것이다. 로햄튼 대학의 선임 강사 Houston, S.이 주도한 첫 번째 연구는 ENB 내에서 이루어진 단기 시범 프로젝트로 웨스트민스터 시의회로부터 소액의 보조금을 받아 진행되었다.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을 기반으로 12주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두 번째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2012년 시작된 두 번째 연구는 폴 햄린 재단의 지원을 받아 3년의 장기 프로젝트로 시행되었다. 지역 또한 ENB의 거점인 런던뿐만 아니라 옥스퍼드 시의회 및 리버풀(MDI), 카디프(National Dance Company Wales), 입스위치(Dance East)의 무용단과 전략적 허브 파트너십을 맺고 ENB 소속 무용수와 뮤지션들이 파견되어 영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2015년 10월 ENB는 새들러스 웰스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로햄튼 대학과 함께 3년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파킨슨병에 대한 무용의 영향력 입증 - 앞으로 나아가기'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예술감독 Rojo, T.와 연구진들이 참여한 심포지엄은 다양한 프레젠테이션, 패널 토론, 청중 질문, 비공식 네트워킹으로 이어졌고, 아트 스트리밍 TV를 통해 캐나다, 미국, 독일, 네덜란드의 시청자를 포함한 약 900명의 전 세계 시청자에게 생중계되었다.(Catherine Mailhac Homepage). 이를 통해 Rojo, T.는 Dance for Parkinson's 프로그램이 발레단과 분리된 기구가 아니라 발레단의 필수적인 활동이라 강조하며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후원과 재정보호에 나섰다.

로햄튼 대학의 두 연구는 ENB 파킨슨 프로그램이 현재까지 지속적인 지지를 받으며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우수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 주목을 받는 밑거름이 되었다. ENB 파킨슨 프로그램은 2019년 런던시에서 발행한 안내서 '더 공정하고 건강한 런던: 헬스케어에 대한 의미'에 “건강한 커뮤니티의 사례연구”로 선정되었다(Greater London Authority, 2019:22). 그리고 2019년 건강 연구 자선재단 웰컴 트러스트(Wellcom Trust)의 200만 파운드 지원으로 킹스 칼리지 런던(King's College)과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이 시행하는 '보건-예술 프로그램 확장: 실행 및 효과성 연구'에 적용될 세 가지 예술 중재 모델<sup>4)</sup> 중 하나로 선정되어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는 예술적 개입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확장성에 대한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로 예술팀과 임상팀이 함께 NHS(National Health Service) 병원과 보건소 내 대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한다.

<sup>4)</sup> 연구에 참여하는 세 가지 예술 프로그램은 ENB의 'Dance for Parkinson's(파킨슨병을 위한 춤)', Breathe Arts Health Research의 'Melodies for Mums(산모의 정신 건강을 위한 음악)', 자선 단체 Rosetta Life의 'Stroke Odysseys(뇌졸중을 위한 공연 예술)'이다.

파킨슨 프로그램은 팬데믹 기간에도 Zoom을 통해 지속되었으며, 팬데믹 기간 내내 파킨슨 수업을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수업, 라이브 스트리밍, 댄스 필름 제작 등에 총력을 기울인 ENB ‘디지털 시즌’은 “팬데믹에 가장 잘 대처한 무용단(Best Company Response to the Pandemic)”으로 2020 National Dance Award를 수상하였다(ENB Homepage). 또한, 2023년 가을 리버풀호프대학교(Liverpool Hope University)는 ENB 파킨슨 프로그램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고 무용학과 재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ENB 전문가들의 지도로 일하면서 춤이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에 대해 배우며 경험을 확장하는 기회를 얻고 있다(Liverpool Hope University Homepage).

이처럼 ENB의 Dance for Parkinson’s는 발레단의 자체 커뮤니티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발레단의 공적 역할에 대한 꾸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발레가 지닌 예술적 이점을 사회로 널리 환원하고자 하는 발레단의 근본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일차적으로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파킨슨 커뮤니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어서 다각적인 공론화 단계를 통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낸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발된 프로그램이 발레단 내 교육으로만 머물지 않고, 그 취지와 신뢰성을 살려 공공기관 및 지역 댄스 커뮤니티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나아가 지역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고립된 파킨슨병 환우들의 접근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 III

## Dance for Parkinson’s Program의 내용 및 특성

앞서 밝힌 바와 같이 ENB 파킨슨 프로그램의 시작은 MMDG의 Dance for PD®가 추구하는 ‘예술적 경험’이란 교육철학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ENB만의 가장 두드러진 독창성은 발레단의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발레 기반의 커뮤니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로햄튼 대학 연구의 모델이 되었던 두 가지 Dance for Parkinson’s 프로그램(단기, 장기 프로젝트)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 1. 단기 프로젝트의 특성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2주간 시행된 Dance for Parkinson's 프로그램은 일종의 시범 프로젝트로 파킨슨 환자를 위한 발레단의 고유한 방식을 모색하는 초기 단계에서 시작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시의회로부터 소액의 지원금을 받은 이 프로젝트는 자치구 및 인근 지역 내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프로젝트의 진행과 관리는 Dance for PD® 교육과정에서 전문 훈련을 받은 ENB 발레 단원 한 명을 중심으로 영국 내에서 2년 이상 파킨슨병 환자와 커뮤니티 댄스 작업을 해 온 프리랜서 발레 교육자, 반주자가 이끌었고 발레 단원들과 일반인이 도우미로 함께 하였다. 수업은 Nureyev, R.가 안무한 《로미오와 줄리엣》을 주제로 하여 ENB가 상주하는 런던 마르코바 하우스에서 일주일에 한 번, 총 12주 동안 시행되었다. 12주간의 프로그램 속에는 실제 발레를 기반으로 한 댄스 세션과 티타임, 극장 견학, 공연 관람 등이 포함되었다. 프로그램의 개요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2010 Dance for Parkinson's 프로그램 개요

일시	장소	주제	수업 구성	대상
2010년 10월 ~ 2011년1월	런던 Markova House	《로미오와 줄리엣》	댄스 세션 티타임 극장 견학 공연 관람	런던 웨스트민스터 자치구 및 인근 주민

이 프로그램의 지향점은 MMDG의 Dance for PD®와 유사하다. 즉,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치료가 아닌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는 ‘예술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ENB 프로그램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예술적 내용과 맥락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발레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ENB가 선택한 《로미오와 줄리엣》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NB는 프로그램에 발레단의 예술성을 반영하고 나아가서는 영국형 모델의 Dance for Parkinson's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기에 Nureyev, R. 버전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여러 측면에서 부합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ENB는 2011년 1월 정기공연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을 준비하고 있었고, 공연 준비와 연습이 이어지는 발레단 내 분위기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알리고 발레 단원들과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Nureyev, R.의 작품이 주는 상징성 또한 크다. Nureyev, R.는 영국민의 전폭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아온 전설적인 무용수일 뿐만 아니라, ENB의 예술적, 사회적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Nureyev, R.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로미오와 줄리엣》을 통해 안무가로서의 역량을 증명하며 ENB에 흥행을 가져다주었다. 특히 엘리자베스 여왕의 실버 주빌리 축하 행사의 목적으로 초연된 《로미오와 줄리엣》은 그의 명성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 제작된 작품으로,

Nureyev, R.는 3주 반 동안 무려 총 25회에 달하는 모든 공연을 주역으로 춤추었다. 공연의 성공은 왕실의 지속적인 후원을 이끌어내었고, 이 작품은 오늘날 ENB의 소중한 레퍼토리로 남아있다(ENB Homepage).

그렇다고 ENB는 파킨슨병 프로그램에 예술성을 반영하기 위해 Nureyev, R.의 명성에만 기댄 것은 아니다. 세션의 실체는 바-센터로 진행되는 기본 발레 수업 구조를 기반으로 참여자의 활동 능력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설계되었다. 수업의 시작은 지도자와 참여자가 다 같이 원을 그리며 앉아서 안정감과 동질감을 확보한 다음, 바 혹은 의자와 같은 보조 도구를 이용해 간단한 상, 하체 움직임에 집중했다. 이후 걷기, 옆으로 흔들기, 행진 등 공간을 이용해 점진적으로 활동량을 늘리며 이동하는 센터 워크로 확장되었다. 세션의 후반은 작은 그룹들을 만들어 간단한 손동작을 이용한 즉흥이 진행되었고 그룹이 원을 그리며 마무리된다. 이러한 동작 구성에는 plié, tendu, développé와 같은 구체적이고 지시적인 발레 어휘들이 반영되었다. 또한, “상체를 열고, 끌어올리고 다양한 동적 특성과 신체의 라인이 만들어내는 에너지”(Houston, S. & McGill, A., 2011:7)를 느낄 수 있는 연습 속에서 발레의 원리를 인식하게 하였다.

이처럼 발레의 원리와 스텝을 참여자들의 수준으로 적절히 조절하여 발레 클래스의 형식을 유지하는 동시에, 내용 면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내러티브적 특성이 반영되었다. 친숙한 줄거리를 바탕으로 “줄리엣의 움직임에 대해 생각할 때에는 가볍고 유려하게 움직이도록 권장했고, 티발트 동작에 집중할 때는 티발트의 자존심과 분노를 생각하며 강하고 힘 있는 움직임을 연상”(Houston, S. & McGill, A., 2013:105)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Nureyev, R. 안무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작품을 경험하는 듯한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Nureyev, R.의 안무에는 영화적인 범위가 있으며 마치 셰익스피어의 대사가 들릴 정도로 사실적인 스토리텔링이 인상적이라 평가된다(Pullinger, M., 2015). 셰익스피어의 텍스트에 매우 충실한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삶과 죽음이 순식간에 결정되는 관능적이고 잔인하며 세련되고 기꺼이 난잡한 시대의 영화적 표현”(The Rudolf Nureyev Foundation Homepage)이라 기록되며 캐릭터의 성격과 사건의 모습이 시각적으로 강조된 작품이기에, 작품 속 캐릭터의 특성을 체화한 움직임들이 세션에 적극 사용되었다. 댄스 세션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단기 프로젝트 댄스 세션의 내용 및 활동

총 수업 횟수 및 시간	주요 내용	병행 활동
총 12회 회당 1.5 시간	<p>1부 (앉아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에 둥글게 앉아서 시작</li> <li>• 리듬에 맞춰 숨쉬기, 손뼉, 신체 마사지</li> <li>• 상체 이완과 확장, 하체 움직이기</li> <li>• 대본을 이용해 목소리, 리듬, 신체 이미지 연습</li> </ul> <p>2부 (서기와 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탬핑(강한 리듬으로 걷기)</li> <li>• 팔 휘두르기</li> <li>• 한 발/두 발 서기</li> <li>• 보폭을 인지하며 라인 걷기</li> <li>•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걷기</li> <li>• 좌우로 흔들기</li> <li>• 그룹 행진</li> <li>• 리듬에 맞춰 손으로 신체 두드리기</li> </ul> <p>3부 (마무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단한 마임을 이용한 소그룹 즉흥</li> <li>• 원을 그리며 다 함께 마무리</li> </ul> <p>사용된 주요 춤의 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미오와 줄리엣》: 광장 격투 장면, 기사단의 춤(깃발 응용), 줄리엣의 춤, 결혼 모티브</li> </ul>	<p>발레 기본 원리와 작품 강 및 대화 (역사, 내용, 의상, 세트, 오케스트라, 원작 악보 등)</p> <p>전문가 시범</p> <p>Prokofiev 《로미오와 줄리엣》 음악을 피아노, 플루트, 클라리넷을 이용해 즉흥 라이브로 연주</p> <p>ENB 리허설 및 공연 관람</p>

이 단기 프로젝트는 발레의 원리와 작품 속 캐릭터를 배우보는 댄스 세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오롯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예술적 체함에 집중하였다. 세션에는 발레와 발레단의 업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었고, 진행자의 레퍼토리 시범과 같은 시각적 단서, Prokofiev, S. 음악의 라이브 연주와 즉흥적인 발레 클래스 연주 등 청각적 단서가 제공되었다. 라이브 연주의 경우, 실제 작품의 오케스트라 녹음본이 아닌, 뮤지션이 한두 악기로 원곡의 멜로디를 단순화하여 연주함으로써 수업의 진행과 호흡을 맞추고 참여자들이 유연하고 조화롭게 움직이는 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와 함께 발레단의 리허설 관람, 공연장 방문, 비하인드 스토리 토크 등의 이벤트가 진행됨으로써 참가자들은 작품에 대한 이해를 한층 넓히고 마치 하나의 발레 공연에 참여하는 발레단의 일원처럼 12주 동안 활동하였다.<sup>5)</sup>

단기 프로젝트를 연구한 결과는 춤이 “신체적, 사회적 활동을 장려하는 성공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춤의 가치는 댄스 세션이 제공한 “정서적, 지적, 사회적 경험”(Houston, S. & McGill, A., 2013:116)에 있었다고 밝힌다. 또한, 춤이

<sup>5)</sup> ENB는 커뮤니티 페스티벌인 World Dance for Parkinson's Day 2018 소개 영상에서 안무가 Aszure Barton의 작품 〈Fantastic Beings〉 중 동일한 시퀀스를 행하는 발레단의 춤과 파킨슨 프로그램 그룹의 춤을 교차하여 보여주면서 “하나의 작품, 하나의 발레단, 하나의 발레(One Repertoire, One Company, One Ballet)”를 강조하고 있다.

신경학적 상태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참가자들에게 신체적으로도 자세와 이동성에 긍정적인 변화가 발견되었지만, ‘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한 단기 연구에서 이러한 변화를 치료의 효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 2. 장기 프로젝트의 특성

2010년 시범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효과에 힘입어 ENB는 시행 지역을 전국으로 확장, 더 많은 참가자를 장기간에 걸쳐 추적하는 후속연구를 다시 로햄튼 대학 연구진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는 2011년부터 진행된 런던 프로그램을 주축으로 영국 전역을 아우르는 4개의 허브 시범 프로젝트가 포함되었다. 프로그램의 시행에 앞서 일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런던의 예술팀을 주축으로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과정(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ourse, CPD)’을 만들고 지역 허브 예술가와 교육, 의료 관계자들에게 Dance for Parkinson’s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CPD 과정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기간 내내 교육내용과 피드백을 공유하면서 교육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나갔다.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은 단기 프로젝트와 같이 발레단의 레퍼토리로 이루어졌으며, 다수의 작품이 지속해서 추가되었다. 프로그램의 개요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2011~2015 Dance For Parkinson’s 프로그램 개요

	일시	장소	주제	수업 구성	대상
1	2011~2014	런던 Markova House	《해적》 《코펠리아》 《잠자는 숲속의 미녀》 《Ecstasy and Death》 《A Tribute to Nureyev》 《Lest We Forget》	댄스 세션 티타임 극장 견학 공연 관람	해당 지역 거주자
2	2013 2월~5월	옥스퍼드 The Old Fire Station	《잠자는 숲속의 미녀》	동일	동일
3	2014 1월~4월	리버풀 MDI	《해적》	동일	동일
4	2015 1월~4월	입스위치 Dance East	‘Modern Masters’	동일	동일
5	2015 4월~7월	카디프 National Dance Company Wales	‘Lest We Forget’	동일	동일

장소는 런던의 경우 ENB 본부인 마르코바 하우스에서 계속되었고, 새롭게 추가된 지역들의 경우 문화센터, 극장과 무용단 등 해당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해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옥스퍼드는 자선 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복합예술센터로 공연, 전시, 교육이 이루어지는 Old Fire Station에서 프로젝트를 시행하였고, 리버풀은 커뮤니티에 무용교육프로그램과 무용 인프라를 지원하는 전략적 기관인 MDI(Merseyside Dance Initiative)가 맡아 진행하였다. 입스위치는 지역 기반 국립 무용 단체인 Dance East가, 그리고 카디프의 경우, National Dance Company Wales가 허브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장기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레퍼토리의 확장에 있다. 한 작품만을 콘텐츠로 삼았던 단기 시범 프로젝트와는 달리 이 프로젝트에는 지역별로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들을 프로그램에 반영하였다. 예를 들면 고전발레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레이몬다 3막》, 《해적》, 《코펠리아》, 20세기 현대발레 《Petite Mort》, 《페트루슈카》, 《Song of a Wayfarer》, 《목신의 오후》, 《젊은이의 죽음》, 《Etudes》, 그리고 21세기 컨템포러리 작품 《Dust》, 《No Man's Land》, 《Second Breath》 등을 이용하였다. 프로그램에 사용된 모든 작품은 ENB의 레퍼토리 프로그램 진행 기간 공연되고 있는 작품 위주로 선정되었다.

지속적으로 공연되어온 고전 전막발레 작품들과 더불어 《페트루슈카》, 《Song of Wayfarer》, 《레이몬다 3막》은 2013년 Nureyev, R. 탄생 75주년이자 사망 20주년을 기리는 공연 'A Tribute to Rudolf Nureyev'의 레퍼토리로, Nureyev, R.의 고전과 혁신의 유산에 관한 헌사가 담긴 무대이다. 그리고 《Dust》, 《No Man's Land》, 《Second Breath》는 2014년 초연된 공연 'Lest We Forget'에 담긴 작품들로,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제작되었다. 21세기 대표적인 영국 안무가들, Khan, A., Scarlett, L., Maliphant, R.,의 작품으로 구성된 'Lest We Forget'과 함께 ENB는 같은 해 가장 영향력 있는 20세기 안무가인 Kylań, J., Neumeier, J., Forsythe, W.의 작품을 선보이는 'Modern Masters' 공연을 무대에 올리기도 하였다. 고전과 현대를 넘나드는 ENB의 행보에는 고전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안무가와 새로운 발레로 컨템포러리 레퍼토리를 소개하고자 노력하는 예술감독 Rojo, T.의 영향이 컸다. 따라서 장기 프로젝트에서 이처럼 ENB가 작업 중에 있는 레퍼토리를 골고루 선별한 것은 발레단의 비전과 예술성을 투영하고자 한 의도라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운영은 런던을 중앙으로 4개 지역 허브 파트너의 조직적인 협력이 이루어졌으며 정기적인 실무진 회의를 통해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ENB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모든 댄스 세션은 기본적인 발레 클래스와 발레의 기본

원리가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되었으며 이는 단기 프로그램과 유사한 구조로 진행되었다. 차이점은 지역팀별로 다른 레퍼토리를 기반으로 필요에 따라 작품에 대한 지도자의 각색과 해석이 반영되었으며,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아이디어 공유와 참여도 늘렸다. 예를 들면 《백조의 호수》속 나폴리 춤을 “리듬, 몸짓, 박수 시퀀스와 발성을 통해 액션으로 재창작”한다든가, 《Petite Mort》의 소품인 “웬싱 검 대신 대나무 막대를 사용하여 몸의 움직임을 확장”하는 운동으로 변형시켰다. 또 ‘Lest We Forget’의 경우 참가자들은 “1차 세계대전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Houston, S. & McGill, A., 2015:8)인지 생각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시와 동작을 함께 만들고 춤을 추었다. 댄스 세션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장기 프로젝트 댄스 세션의 내용 및 활동

총 수업 횟수 및 시간	주요 내용	병행 활동
런던 주 1회(계속) 회당 1.5 시간	<p>1부 (앉아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듬에 맞춰 손뼉, 신체 마사지로 워밍업</li> <li>• 호흡, 팔 동작(port de bras), 시선 위주의 상체 동작과 간단한 발동작 시행</li> </ul> <p>2부 (서기와 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손/한 손으로 바/의자를 지탱하여 기본 바 워크의 상·하체 동작 시행</li> <li>• 스텝핑 (강한 리듬으로 걷기)</li> <li>• 음악에 맞춰 걷기 (보행 균형 향상)</li> <li>• port de bras의 우아함을 이용하여 팔·다리 협응력 증진</li> <li>• 바닥을 가로질러 이동, 교차, 미러링</li> <li>• 움직이면서 말하기(소리 지르기)</li> <li>• 즉흥 (표정) 연기와 현재 레퍼토리 연습</li> </ul> <p>3부 (마무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단한 마음을 이용한 소그룹 즉흥 연습</li> <li>• 원을 그리며 다 함께 마무리</li> </ul>	<p>발레 원리와 작품 강의 및 대화 (역사, 내용, 의상, 세트, 오케스트라, 원작 악보 등)</p> <p>전문가 시범</p>
각 허브별 주 1회(총 12회) 회당 1.5 시간	<p>사용된 주요 춤의 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적》: Nureyev, R.의 원형 점프를 모티브로 참가자들은 원으로 둘러앉아 점프 리듬에 맞춰 크게 손뼉 치며 표현하는 시퀀스 진행</li> <li>• 《백조의 호수》: 백조 군무의 팔 동작 배우기, 나폴리 춤의 배경을 피자 가게로 설정하고 음악에 맞춰 리듬, 몸짓, 박수 시퀀스와 약간의 발성을 통해 극적 동작으로 창작</li> <li>• ‘Lest We Forget’: 1차 세계대전에 대해 각자 의미를 되새기며 시를 만들고 동작으로 창작, 작품 음악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기</li> <li>• 《Petite Mort》: 대나무 막대를 이용하여 상체를 확장하고 표현하는 운동으로 변형, 작품 속 갑옷과 코르셋을 상상하며 곳곳하게 움직이기</li> <li>• 《잠자는 숲속의 미녀》: 상체의 전환과 활용이 큰 ‘카라보스 저주’ 마임과 표정 연기</li> </ul>	<p>해당 작품 음악을 라이브로 연주하여 바, 센터 워크 및 군무 연습에 이용</p> <p>ENB 리허설 및 공연 관람</p>

프로그램은 댄스 세션 외 작품 비화에 관한 토크, 전문가 시연, 공연 관람 등이 포함되었다. 공연 관람은 각 지역 댄스 세션에서 다루는 작품을 보기 위해 참가자들이 단체로 공연장을 방문하는, 일종의 관람과 극장 견학이 결합된 커뮤니티 활동 형태로, 라이브 공연뿐만 아니라 리허설과 극장 내부의 장면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프로그램의 레퍼토리가 공연이 진행 중인 ENB 작품으로 구성되었기에 댄스 세션과 연계된 극장 활동이 가능하였고 참가자들은 자신이 배운 춤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더욱 심화시킬 기회가 되었다. 참가자들은 발레단과의 작업을 특별히 여기며 생생한 경험을 전한다(29).

제가 영국국립발레단과 함께 훈련한다는 사실에 모두가 매료되었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이곳에 오면 특별한 날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경험의 격을 높여주죠...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발레에 대한 지식도 얻고 의상을 보는 것도 즐겁지만 발레를 탐구하는 것은 제게 새로운 즐거움이었습니다. 수업의 특별함을 더해줍니다.

《해적》공연을 보기 위해 맨체스터로 떠난 여행은 모든 경험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아름다운 의상을 가까이에서 보고 악보의 역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환상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저희를 돌봐주셨고 불편한 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3년에 걸쳐 확장된 장기 프로젝트는 단기 프로젝트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과 참여 인원을 크게 늘리고 고전과 컨템포러리를 아우르는 다양한 발레 레퍼토리를 소개하고 교육하는 데 주력을 하였다. 각 지역 허브는 런던의 단기 프로그램처럼 총 12주 시범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였지만 이후 협력 기관들의 지지와 기금으로 현재까지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발레 작품을 통한 다각적 접근은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예술적 경험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하였고 제도적인 정착에 한 단계 더 다가서는 성과를 낳았다고 평가된다.

장기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 역시 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다방면의 활동과 문화적 경험이 참가자들에게 큰 이점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한다. 한 참가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상상력, 창의성, 언어, 색감, 음악, 리듬 등 우리가 하는 일을 설명할 수 있는 8~10개의 단어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양한 삶을 살아오면서 이 모든 것을 결합한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래층 스튜디오(발레단)에서 일어나는 일의 폭과 깊이는 매우 중요합니다(39).

특히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춤은 인지 기능과 심리적 건강, 사회성 함양 등 비운동 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신체적으로도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유용함이 임상적인 유의미함이나 운동의 측면에서 다른 신체 활동과의 차이점으로 귀결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춤은 상응하는 운동량을 지닌 다른 신체 활동과 비교했을 때 지적, 사회적, 정서적 수준에서 깊은 울림을 주는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는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연구는 밝히고 있다(39-40).

두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볼 때, Dance for Parkinson's의 특징은 파킨슨병 증상을 염두에 두고 고안되었지만, 발레 클래스의 큰 틀 안에서 발레의 특성인 신체 정렬, 우아함, 표현력, 유연성을 적극 이용하여 미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는 일반 발레 클래스와는 달리 특정 작품의 주제를 인지시킨 후 그 맥락과 동작을 기반으로 표현 범위와 운동량을 늘려나가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일반적인' 환자가 아닌 발레 속 '구체적인' 정체성을 탐구하고, 작품에 맞춰 함께 춤을 체험하며 그룹 활동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독창성이 있다.

커뮤니티 교육의 확산 측면에서 Dance for Parkinson's의 가치는 단기 프로젝트의 긍정적 결과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댄스 커뮤니티와 협업하여 더 많은 지역과 그룹에 다양한 레퍼토리의 효용성을 시험하였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레퍼토리는 컨템포러리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는 발레의 조직적인 신체 활용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해석을 추가해 다양한 모습을 이미지화함으로써 미적 체험과 굳어진 표현 능력을 더욱 증진시키는 효과도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Dance for Parkinson's는 전통적인 발레 미학의 유기적 활용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질병으로 소실되어가는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과 상상을 다시금 고취시키고, 작품과 그룹 활동을 연계하여 교류를 확장하면서 사회적 실천이라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예술적 경험'이란 접근에서 공공발레단 최초로 관련 연구를 시행하고 발레를 이용해 파킨슨병 커뮤니티 무용교육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ENB의 Dance for Parkinson's 사례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ENB의 Dance for Parkinson's의 가장 큰 특징은 발레단 레퍼토리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참가자는 단순히 기능적인 운동 효과를 위해 난이도를 적절



히 조절한 ‘발레 테크닉’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발레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작품의 내용 및 배경 등의 지식을 얻고 실제 작품 음악에 맞춰 동작을 배움으로써 마치 발레 공연의 일부가 된 소속감과 자기효능감을 느낀다. 또한, 클래식 발레의 내러티브는 참가자들을 역할극 속에 위치시켜 구체적인 감정 이입이나 다양한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흥미를 더한다. 이는 파킨슨병으로 인해 개인의 스토리가 무너지고 지워지는 삶에 색다른 스토리를 부여함으로써 현실에 즐거움과 활력을 가져다준다.

댄스 세션뿐만 아니라 해당 작품과 연계한 극장 견학과 공연 관람까지 포함함으로써 예술적 지식을 확장하고, 폭넓은 문화 활동을 통해 ‘총체적인 예술적 경험’을 부여한다는 점도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실내의 활동을 통해 고립감에서 벗어나고, 예술작품을 포괄적으로 경험하면서 자신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의미 있는 예술 활동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함께 움직이고 이동하고 같은 주제로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커뮤니티의 공동체적 유대감과 사회성을 증진한다.

본 프로그램이 다양한 움직임이 아닌 발레에만 집중한다는 점은 일종의 한계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이는 동시에 발레의 효용성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줄 수도 있다. 발레의 고전적인 미학과 일률적인 교수법은 개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오늘날 무용교육에서 그리 환영받지 못하지만 이처럼 특정 커뮤니티의 맥락에선 그 의미를 달리한다. 발레-파킨슨병 연계 프로그램은 무너지고 부자연스러워지는 신체에 대한 ‘조직적인 자유와 아름다움’을 상상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신체 인식과 유용한 신체활동으로 작용하며, 더불어 발레의 역사성과 대중성은 비운동적 활동 영역인 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도 충족하는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ENB의 Dance for Parkinson’s 사례는 공공발레단이 지닌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기에 실행 가능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최대한 많은 관객이 발레와 만나는 ‘모두를 위한 발레’의 가치를 실현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발레단의 구체적인 의지는 확고했기에 이 프로그램은 영국 내에서 모범적인 커뮤니티 댄스의 사례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역할, 공적 지원, 사회적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한다. ENB는 지난 십여 년에 걸쳐 파킨슨병을 위한 독창적인 커뮤니티 댄스 프로그램을 위해 자체적인 단기 시범 연구에서 시작해 지역과 대상을 확장하여 많은 공공 지원을 이끌어냈으며, 그 결과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ENB가 완료한 장, 단기 연구는 문화 경험으로서의 가치에 초점을 두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신체 치료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었고 후속 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따라서 이 국가 연구는 의료계와 예술계의 전문가가 협력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치료와 예술 활동의 연관성을 보다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향후 결과를 기대하게 만든다.

치유는 과학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영향을 받는 정신적, 심리적인 영역도 함께 살펴야 한다. 본 연구의 사례처럼 파킨슨병을 위한 무용교육 프로그램은 이러한 의미에서 예술과 임상이 공존하는 전인적 치유를 향해 나아가는 모델이라 여겨지며, 그 속에서 전문 무용수의 역할과 양성 또한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2017년 국내에도 Dance for PD®가 도입되면서 점차 많은 전문인력이 배출되고 있기에 향후 파킨슨병과 춤에 관한 연구들이 임상, 교육, 공연 등 다양한 관점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가 파킨슨병 무용교육프로그램의 실제적 적용, 치유를 위한 커뮤니티 댄스, 커뮤니티 댄스의 공공성 및 공적 지원 등과 관련한 후속 연구의 사례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참고문헌

- 김무현(2019), “무용 교육 프로그램이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 및 균형에 미치는 영향: -Dance for PD를 기반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이경희(2018), “파킨슨을 위한 무용교육프로그램: Dance for PD”, 무용역사기록학회, **무용역사기록학** 51, 125-148.
- 이온누리(2013), “커뮤니티 댄스의 실제와 가능성 모색”, 미간행, 예술전문사학위논문,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 이은형(2022),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무용프로그램의 블렌디드-러닝(Blended-Learning) 방안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제환정(2019), “환자에서 댄서로, 창의성을 춤추기”, 대한무용학회,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3(1), 175-186.
- Bertoli, M., Della Croce, U., Cerretti, A. & Mancini, M.(2019), “Objective measures to investigate turning impairments and freezing of gait in people with Parkinson's disease”, *Gait & posture* 74, 187-193.
- Carpinella, I., Crenna, P., Calabrese, E., Rabuffetti, M., Mazzoleni, P., Nemni, R. & Ferrarin, M.(2007), “Locomotor function in the early stage of Parkinson's disease”, *IEEE transactio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 15(4), 543-551.

- Chung, S. J., Kim, H. R., Jung, J. H., Lee, P. H., Jeong, Y. & Sohn, Y. (2020), "Identifying the functional brain network of motor reserve in early Parkinson's disease", *Movement Disorders* 35(4), 577–586.
- Houston, S. & McGill, A. (2011), "English National Ballet Dance for Parkinson's: An investigative study", London: English National Ballet & Roehampton University.
- \_\_\_\_\_ (2013), "A mixed-methods study into ballet for people living with Parkinson's", *Arts & Health* 5(2), 103–119.
- \_\_\_\_\_ (2015), *English National Ballet, Dance for Parkinson's: An Investigative Study 2*, London: English National Ballet & Roehampton University.
- Jankovic, J. & Sherer, T. (2014), "The future of research in Parkinson disease", *JAMA neurology* 71(11), 1351–1352.
- Wang et al. (2022), "Effects of dance therapy on non-motor symptoms in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Aging Clin Exp Res* 34(6), 1201–1208.
- Yang et al. (2022), "Efficacy and evaluation of therapeutic exercises on adults with Parkinson's disease: a systematic review and network meta-analysis", *BMC geriatrics* 22(813), 1–14.

김채현(2012.10.23.), "커뮤니티댄스, 가치 인식으로 내실 기해야", 서울문화투데이, <http://www.s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37>, (2023.11.20).

Hutera, D. (2012.10), "커뮤니티댄스의 가치(영국 커뮤니티댄스의 철학과 영역)", 춤웹진, [http://www.koreadance.kr/board/board\\_view.php?view\\_id=21&board\\_name=plan&page=45](http://www.koreadance.kr/board/board_view.php?view_id=21&board_name=plan&page=45), (2023.11.22)

Catherine Mailhac Homepage, <https://www.mailhac.org/dance-for-parkinsons-symposium-english-national-ballet/>, (2023.12.01).

English National Ballet Homepage, <https://www.ballet.org.uk/the-company/>, (2023.11.15.), <https://www.ballet.org.uk/blog-detail/winners-announced-national-dance-awards-2020/>, (2023.11.26.), <https://www.ballet.org.uk/production/romeo-juliet/>, (2023.11.30.).

Greater London Authority (2019), "A Fairer, Healthier London", [https://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mol\\_health\\_inequalities\\_summary\\_healthcare\\_pp6.pdf](https://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mol_health_inequalities_summary_healthcare_pp6.pdf), (2023.12.10)

Liverpool Hope University Homepage, <https://www.hope.ac.uk/news/allnews/university-partners-with-english-national-ballets-dance-for-parkinsons-initiative.html>, (2023.11.30.).

Parry, J. (November 26, 2015), "Dance for Parkinson's and English National Ballet", DanceTabs, <https://dancetabs.com/2015/11/dance-for-parkinsons-and-english-national-ballet/>, (2023.12.10.).

Pullinger, M. (November 01, 2015), "Cinematic storytelling in English National Ballet's fine Romeo and Juliet", Bachtrack, <https://bachtrack.com/review-romeo-juliet-nureyev-english-national-ballet-southampton-october-2015>, (2023.12.28.).

The Rudolf Nureyev Foundation Homepage, <https://nureyev.org/rudolf-nureyev-choreographies/romeo-and-juliet-rudolf-nureyev/>, (2023.12.12.).